Ⅰ. 經濟·社會 環境變化

1. 巨視經濟展望

가. 國內經濟

(1) 經濟成長

- '97년도 國內經濟는 계속적인 景氣萎縮으로 6.0%~6.5%의 낮은 성장율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며, '97년 하반기 중 경기하강국면을 서서히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와 같은 고성장율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ㅇ 景氣萎縮의 主要因인 國際交易條件의 惡化가 '97년 하반기부터 호전됨에 따라 경기회복세가 나타날 것이지만, 잠재성장율의 하락과 국내경제의 高費用·低效率 구조로 인해 급속한 경기상승을 시현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ㅇ '96년 중 크게 둔화된 總固定投資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중심으로 다소 회복될 전망이지만, 設備投資 및 민간건설투자가 不進하여 전체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며,

ㅇ 民間消費支出에 있어서는 경기둔화와 고용불안정성 증대, 비과세가계장기저축 등 저축유인 정책, 高費用構造 개선을 위한 기업의 경상비용지출 억제정책 등으로 인하여 소비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되며,

ㅇ 政府消費支出은 방위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經常費用 支出抑制와 사회간접자본 투자 증대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며,

ㅇ '96년의 사상최대 적자를 유발한 交易條件 惡化가 다소 개선되어 무역수지적자 폭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높은 회복세를 보이지는 않아 무역적자가 통관기준으로 110억~170억 달러로 예상됨.

(2) 失業率

- 景氣萎縮 및 과거 종신고용제의 와해로 失業率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전망임.

ㅇ OECD 가입에 따른 整理解雇制 및 年俸契約制등의 도입은 노동시장이 市場原理에 의해 운영됨을 의미함.

ㅇ 따라서 과거의 실업율 패턴과 달리 경기위축으로 인한 失業率 增加現狀이 두드러질 전망임.

(3) 物價

- '97년 消費者物價 上昇率은 경기하강의 영향으로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져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둔화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ㅇ 景氣下降 및 賃金上昇率 下落 등에 따른 소비수요의 감소와 함께 농산물수입증가에 따른 가격상승폭 하락, 부동산가격 안정, 국제원자재가격 안정 등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

ㅇ 그러나 원화 平價切下에 따른 수입품가격의 상승, 해외 자본유입의 증대 등의 요인으로 그 둔화폭이 적을 전망임.

- '97년 생산자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과 임금상승율 둔화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Ⅰ-1> '97年度 巨視經濟 展望

(단위 : %)

구 분	KDI	KIET	금융연구원	현 대	대 우	LG	쌍 용
GDP 성장율	6.5	6.4	6.3	6.7	6.0	6.3	6.3
최종소비지출		5.9	6.1		6.0	5.9	6.3
민간소비지출	6.9	6.2	6.6	6.8	6.2	6.4	6.7
총 고정 자본 형성	4.8	6.0	5.3		5.9	3.5	6.0
건설투자		5.9	6.2		8.9	6.5	7.5
설비투자	2.1	5.4	4.1	4.0	1.9	-0.4	3.9
수 출 (억$)	1,424	1,413	1,436	1,446	1,437	1,424	1,400
수 입 (억$)	1,489	1,588	1,553	1,608	1,604	1,553	1,548
경상수지 (억$)	-132	-174	-167	-170	-152	-161	-158
소비자 물가상승률	4.3	4.5	4.3	4.5	4.6	4.5	4.9
생산자 물가상승률		2.4	2.1		2.5	2.4	3.3
시장금리[1]	11.2		10.8	11.0	-	10.3	12.0
원/달러 환율			821		-	837	841
실업율			2.7		2.3	2.5	2.5

주 : 1) 회사채 수익율 기준임.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KDI경제전망』, 1996 3/4.
산업연구원, 『96/97 분기별 경제전망』, 1996. 10.
한국금융연구원, 『향후 1년간의 경제전망』, 1996. 10.
현대경제사회연구소, 『'97년 경제전망』, 1996. 10.
대우경제연구소, 『분기별 국내경제전망: 1996.3/4~1997.4/4』.
LG경제연구원, 『경제전망』, Vol. 26, 1996. 9.
쌍용경제연구소, 『'97 경제전망과 기업경영환경』, 1996. 9.

(4) 金利 및 換率

- '97년 중 금리는 경기하강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율의 감소, 상대적인 물가안정, 金融市場 開放에 따른 해외자금조달 기회의 확대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ㅇ '95년 연간 13.9%, '96년 11.8%의 수준을 기록한 금리는 '97년 중 10.5%~12.0% 수준에서 안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ㅇ 그러나, 金利安定을 威脅하는 불안요인으로 大選을 앞둔 자금시장의 불안정성, 금융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불안정성, 경기하강 지속시의 운전자금 수요, 民資에 의한 社會間接資本 투자에 따른 자금수요 등이 상존함.

- '97년 연중 대미달러 換率은 820~840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나. 國際經濟

(1) 經濟成長

- 世界經濟는 '96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97년에는 유럽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등 先進國 經濟의 성장세 지속과 개도국의 성장세 회복으로 3.5%~4.0%대의 견실한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Ⅰ-2> 主要國의 經濟成長率 展望

(GDP기준, %)

국 별	'96			'97		
	WEFA	IMF	OECD	WEFA	IMF	OECD
세계	3.3	3.8	3.8	3.9	4.1	4.3
선진국	2.2	2.3	2.0	2.4	2.5	2.6
미국	2.2	2.4	1.8	2.4	2.3	2.2
일본	3.8	3.5	2.7	2.2	2.7	3.1
독일	0.8	1.3	1.0	2.1	2.4	2.9
영국	2.2	-	2.2	3.5	-	2.7
개도국	-	6.3	-	-	6.2	-
태평양연안국	7.2	-	-	7.1	-	-
아시아	-	-	-	-	-	-
중국	9.3	-	-	9.4	-	-
중남미	2.9	-	-	4.9	-	-
시장경제전환국	-	0.4	-		4.0	-

주 : 태평양연안국은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대만 및 태국을 포함.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6. 8.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6.8
OECD, *OECD Economic Outlook*, 1996. 6.

ㅇ 美國經濟의 성장세는 다소 鈍化될 것으로 예상되나 '96년 중 침체했던 유럽경제는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일본경제도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ㅇ 개도국 경제는 中國의 緊縮政策 緩和에 따른 높은 성장과 중남미 경제의 회복세 지속 등으로 '96년 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ㅇ 동유럽 및 러시아 경제도 플러스(+)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97년도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세계경제가 전반적인 상승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선진국의 수입수요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 7%대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2) 國際金利

- 世界經濟의 上昇勢가 擴散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일본 등을 중심으로 국제금리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그 상승폭이 크지 않아 安定勢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금리의 경우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인해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ㅇ 美國의 경우 '96년 2/4분기 이후 경기호조로 금리인상이 예상되었으나 하반기에 접어들어 경기의 둔화국면에 접어들어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퇴조하였고, '97년에도 경기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리의 하향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ㅇ 경기회복이 예상외로 不進했던 獨逸과 日本은 '96년 중 금리가 안정적이었으나 '97년 중 경기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완만한 상승이 예상됨.

(3) 國際換率

- '97년 미달러화는 일본 및 독일경제의 완만한 상승에 힘입어

'96년에 비해 强勢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일본과 독일의 경제회복과 금리인상에 의한 엔화 및 마르크화에 대한 달러貨 弱勢化는 환율의 장기적인 변동(long swing) 및 최근 국제무역결제 통화로서의 달러貨 역할을 감안할 때 '97년 보다는 '98년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됨.

- 円貨의 경우 日本經濟의 回復勢 지속에 따른 금리인상 예상과 현재 엔저에 따른 輸出增加로 인하여 '97년에는 엔화의 완만한 약세를 전망할 수 있음.

- 마르크화는 '97년 중 景氣上昇으로 경기부진을 벗어나기 위해 유지해 온 저금리정책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金利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화가 一時的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으나 전반적인 기조는 美달러貨의 강세가 예상됨.

<표 I - 3> 國際金利 및 換率 展望

구 분		'96				'97	
		1/4	2/4	3/4	4/4	2/4	4/4
금 리[1]	미 국	5.3	5.5	5.3	5.2	5.2	5.0
	일 본	0.5	0.7	0.6	1.0	1.8	2.5
	독 일	3.3	3.1	3.2	3.2	3.7	4.4
국제환율[2]	엔/달러	106.5	109.8	108.5	108.0	110.5	113.0
	마르크/달러	1.48	1.52	1.48	1.54	1.57	1.60

주 : 1) 금리는 3개월 만기 유로금리로 기말기준임.
2) 환율은 기말기준임.

자료 : WEFA, *Foreign Exchange Rate Outlook*, 1995. 9.

2. 金融經濟環境

가. 金融市場 開放

- '97년 1월부터 OECD의 자본이동 自由化規約 및 經常貿易外去來 자유화규약에 대한 자유화율이 65%에 이르게 되는 등 金融開放化가 크게 확대되어 해외자본 유입,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시장진입 등이 크게 증가할 전망임.

- 株式市場과 債券市場 등 자본시장에 대한 개방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海外資金의 流入이 증대하고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금리인하 등이 기대되는 반면, 통화관리상의 곤란, 物價不安 등 국내경제의 불안정성이 증대할 가능성도 있음.

  ㅇ 外國人의 주식투자한도의 경우 20%에서 23%로 확대되고, 채권시장의 경우 중소기업 無保證 장기채에 대한 직접투자와 외화표시 채권발행이 '97년 12월부터 허용될 예정임.

  ㅇ '97년부터 제한적 범위내에서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引受·合併이 許容되고, 12월부터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시 자기자본조달비율 폐지와 중소기업의 연지급기간 및 수출선수금 기간에 대해 지역 및 용도에 관계없이 180일로 연장 등의 자유화가 계획되어 있음.

- OECD 자유화규약의 이행으로 '97년 중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폭이 점차 擴大될 계획이며, '98년 말까지는 100% 지분참여 및 現地法人 設立이 허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외국 금융기관에 의한 市場蠶食이 예상됨.

ㅇ 投信業의 경우 '97년 말까지는 외국인지분제한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며, 상호금융업,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종금사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97년 중 자유화될 예정임.

ㅇ 保險業의 경우 '97년중 합작생보사의 최저지분(49%) 폐지 및 재보험업, 保險代理店이 자유화되며, '98년 말에는 은행 및 증권사업 전면 자유화와 보험브로커 개방이 시행될 계획임.

나. 金融産業 構造改編

- 同種 및 異種 금융기관간 競爭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引受·合倂 및 大型化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지원이 강화되고 있어 引受·合倂과 大型化가 보다 촉진될 것으로 전망됨.

ㅇ 개방화 및 경쟁격화에 따른 不實 金融機關의 出現이 크게 우려되고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할 필요가 증대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을 포함한 금융산업의 構造改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金融機關의 合倂 및 轉換에 관한 法律」의 개정추진)가 진행되고, 대형화 및 綜合金融化를 위한 금융기관의 노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金融市場 開放과 금융기관 不實化의 우려 등으로 금융기관 대형화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금융전업기업가제도의 개선을 비롯하여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規制緩和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

고, 타금융업무에 대한 子會社 設立을 통한 進入許容의 폭이 확대되는 등 금융산업 구조개편이 가속화되고, 자회사설립을 통한 종합금융화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나타날 전망임.

ㅇ 현단계 금융산업 개편의 기본방향은 銀行, 證券, 保險을 3大 軸으로 하여 고유업무에 관한 직접 겸영은 금지하되 자회사 설립을 통한 他業種 進出과 종합금융기관화를 허용하는 방향이며, 이와 함께 모회사에 의해 수행가능한 업무영역의 범위도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 실정임.

ㅇ 銀行産業의 경우, 타금융권의 규제완화로 인해 소비자금융 분야에서 固有의 業務領域이 縮小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반면, 내부경영의 자율화, 단기성 수신의 단계적 자유화, 정책금융의 전면 폐지, 신상품 개발허용 등으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M&A 및 子會社 設立을 통한 타 금융업으로의 진출도 활발히 모색할 전망임.

ㅇ 證券産業의 경우, '96년 중 증권사의 투신업진출이 허가된데 이어, 증권법 200조(주식대량소유제한) 폐지, 신설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 업무 허용, 주가지수 옵션시장 개설 등 규제완화 및 업무영역 확대 폭이 커지고 있는 반면, 타금융권의 투신업 진출도 가능해져 競爭激化가 예상됨.

다. 金融市場 制度改編

- '96년 말 콜시장이 통합되고 콜중개전문기관이 설립되며,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 콜차입한도가 설정됨.

- '95년말 第3段階 金利自由化가 완료되어 본격적인 금리자유화 시대가 열린데 이어 '97년 이후 제4단계 금리자유화가 추진될 예정임.

ㅇ 第3段階 金利自由化의 完了로 금리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보통예금, 저축예금과 별단예금,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 1-3개월짜리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등 요구불예금과 초단기예금임.

- 국내 채권시장이 3년만기 회사채를 중심으로 한 단기시장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더불어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전망됨.

ㅇ 장기채권시장의 미비로 투자대상이 대출 등 단기자금으로 제한되었으나 이러한 제약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임.

- 株價, 金利의 변동성이 증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담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先物去來 등 파생금융 상품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ㅇ '96년도의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보험사에게 株價指數先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음.

ㅇ 향후 유니버셜보험 등 실적배당 신상품의 도입시 投資危險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活用되어야 할 것임.